

Japan Weekly Digest

2010. 2. 22 ~ 2. 28

□ 금주의 이슈

- 도요타 사장, 美 청문회 출석
- 日, 자동차업계 8사, 1월 해외생산 70%증가
- 日, 전문가위원회 美일간 '밀약' 확인

□ 일본 정재계 소식

- 하토야마 총리, 공명당대표와 회담
- 요네쿠라 차기 경단련회장 국민시선 정책강조
- 경제 3단체, 온난화대책 정부주도 견제
- 日, APEC 실무회의에서 FTAAP 로드맵 의제 논의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산업경쟁력강화 정책 발표
 - * 신흥국 인프라, 신에너지 등 집중 지원
- 국토교통성, 자동차 리콜제도 재검토 시사
- 정부,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1% 증액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일본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경제에 경고등'
LG경제연구원 (2010. 2. 24)

□ 파트너를 찾습니다

-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 톱아트
-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 미시마코산
-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도요타 사장, 美 청문회 출석

- 도요타 아기오 사장은 24일, 美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하고 대규모 리콜에 대한 도요타의 리콜 대응에 대해 사죄
 - 아기오 사장은 리콜사태에 대해 “안전에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
 - 결함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이 아닌 기계적인 것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가속페달과 바닥 메트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
- 청문회는 CNN이 장시간에 걸쳐 생중계를 진행하는 등 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고, 아기오 사장은 CNN '래리 킹 라이브'에도 출연해 “힘든 하루였다. 진심이 얼마나 전달됐는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

○ 日, 자동차업계 8개사, 1월 해외생산 70%증가

- 일본승용차 8개사가 발표한 1월 해외생산실적(속보)은 약 103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0% 증가했음
 - 중국 등 아시아의 매출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상회
 - 국내생산도 다이하쓰를 제외한 7개사가 전년 동월 상회

| 기업명 | 국내생산 | 해외생산 |
|-----|------------------|------------------|
| 도요타 | 26만8,888 (+28.5) | 37만5,037 (+83.8) |
| 혼다 | 7만7,384 (+0.2) | 21만3,368 (+42.9) |
| 닛산 | 8만6,938 (+83.1) | 19만9,048 (+17.5) |

* 단위는 대수, ()내는 전년대비 증가비율임

○ 日, 전문가위원회 美·일간 2개의 ‘밀약’ 확인

- 美·일간 밀약을 조사해 온 日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23일, 1960년 美·日 안보조약 개정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앞서 '오키나와 핵 반입' 등 2개 밀약을 확인했다고 발표
 -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2개 밀약 내용을 일부 수정할지, 파기할지를 미국과 논의할 방침
 - 美·日是 주일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키로 되어 있음

□ 일본 정재계 소식

○ 하토야마 총리, 공명당대표와 회담 (공명당 정당 순위 : 3位)

- 하토야마 총리는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의견교환
- 공명당은 사회보장제도 등을 담은 ‘신공명 비전’정책을 총리에게 제안하였고, 총리도 후생노동성에 검토를 지시
- 요미우리신문은 공명당의 이런 행동은 중의원선거와 관련되어 있고 민주당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도

○ 요네쿠라 차기 경단련회장 국민 시선 정책 강조

- 차기 경단련 회장으로 내정된 요네쿠라 회장은 국민의 이해를 얻고, 정부와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대기업 중심 정책만을 강조해 오고 있다는 오해를 없애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
- 요네쿠라회장은 「민간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

○ 경제 3단체, 온난화대책 정부 주도 견제

- 일본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는 23일, 정부가 검토 중인 「지구온난화 대책기본법안」에 관해, 국민적 논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
- 정부가 발표한 온난화 대책은 「법안 개요」밖에 제시되지 않아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결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

○ APEC, 고급실무자회의 히로시마에서 개최, FTAAP 로드맵 의제 도출

- 요코하마에서 11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첫 번째 회의로 경제역내통합(FTAAP)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21개국과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산업경쟁력 강화 민관협력 지원 발표

- 경산성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등 신흥국 인프라 수요 개척이나 차세대 에너지기술개발 등 5분야에 중점지원 정책을 발표
- 25일 산업구조심의회를 개최하고, 일본 기업의 수익구조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구조 비전」 검토를 개시
- 주요내용으로는 (1)신흥국 인프라 수요 개척, (2)차세대 에너지 개발, (3)의료나 개호 등의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4)콘텐츠나 패션 등의 문화산업, (5)우주 등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 국토교통성, 자동차 리콜제도 재검토 시사

- 마에하라 국토교통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 작은 불량이 생겼을 경우라도, 국토교통성이나 소비자청이 자동차회사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불량을 기술적으로 조사하는 독립행정법인 「교통안전환경연구소」의 조직 강화나 국가에 의한 리콜 권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

○ 정부,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1%까지 증액

- 정부는 20일,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명목GDP 대비, '08년도 0.67%에서 20년도에는 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

| | |
|---|------------------------------------|
| 1 | 10년 후 논문 인용도를 세계 3위권으로 진입 |
| 2 | 연구자의 본교 출신자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 |
| 3 | 주요 질환 게놈 해석에 의한 예방 의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 4 | 국내 미확인 藥의 리스트를 줄임(50%정도) |
| 5 | 주택의 단열기준·에너지 효율 재검토 |
| 6 | 바이오 연료도입 비율의 법제화 |
| 7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1%까지 증액 |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일본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경제에 경고등’, LG경제연구원(2010. 2. 24)

○ 흔들리는 일본경제의 위상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하락
- 일본제품의 고품질 신화도 전반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음
- 2000년 이후 제조업에 다시 주력했던 일본의 전략은 수익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한·일 경제 현상 비교와 시사점

(일본형의 저출산과 경제쇠퇴의 악순환 발생 우려)

- 일본경제가 인구구조나 세계경제 및 국제분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숙된 경제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과 같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 경제활동 및 소비시장 위축 → 고용환경 악화 → 생활기반 악화 → 저출산 심화에 이르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함

(탈 공업화 사회 대비 부족)

- 설비투자 주도 경제에서 빨리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쟁력, 전략구상 능력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일정한 성장세와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미래과제의 해결에 나선다면 일본과 같은 경제어려움을 피할 수 있음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미래를 위한 준비 서둘러야)

- 저출산과 경제쇠퇴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지·강화하면서 아울러 생활기반, 지적인프라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자체적 이노베이션 능력 갖추면서 서비스경쟁력의 확보에도 주도해야 함

【일본관련 주요 보고서】

-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 BOP비즈니스』 다이와 종합연구소, 2월 23일
 - 일본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성 있는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BOP시장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신시장 개척에 착수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안
-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의 효과』 일본종합연구소, 2월 23일
 -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에 의해, 에너지절약 관련 리폼건수는 60% 증가 전망. 에너지절약 등을 수반하는 리폼시장규모는 6,500억엔으로 추측. 리폼 수요는 최대 3,900억엔 정도 확대될 가능성
- 『월례 경제보고』 내각부, 2월 23일
 - 경기는 회복경향에 있지만, 자립성이 부족하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힘든 상황. 경제전망은 당분간 어려운 고용조건이 계속되겠지만 해외경제 회복과 긴급경제대책 효과에 의해 경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2010. 2월 | 주 요 일 정 |
|-----------|---|
| 2월 22일(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제1회 고급실무자회의 개최(히로시마) ◦ 요네쿠라 차기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 1월 전국백화점 매출동향 발표 |
| 2월 23일(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합 |
| 2월 24일(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 1월 기업서비스가격지수 발표 |
| 2월 26일(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 1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경산성) |
| 2월 27일(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인천) |

□ 파트너를 찾습니다

1.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의뢰해 왔습니다.

☞ 의뢰기업명 : 톱아트(일본의 미술품, 공예품 통신판매사)

2.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을 수탁생산해줄 한국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의뢰기업명 : 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미시마코산'

☞ 한국기업의 조건 : 현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관계에 있을 것

3. 일본의 투자전문기관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한국내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재용 선임연구원 / Tel : 02-3014-9845 / jyjun@kjc.or.kr)

♣ 時事用語 ♣

□ POS 데이터

- 상품을 판매할 때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매상 정보를 점포나 소매 리서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어느 상품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소매점에서는 자료를 축적해서 판매관리나 매상 정보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POS는 판매시점을 나타내는 Point Of Sales의 약어로 일본경제신문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전국 320점포의 265만종의 상품에 POS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본경제 POS자료로서 관리하고 있음.
- 일용품, 식료품 등의 판매 점유율이나 평균가치의 동향을 매일 또는 매월 파악할 수 있음.

□ 아바타(Avatar)

-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분신으로 이용하는 캐릭터 상을 말한다. 미래는 「지상에 강림하신 신의 화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얼굴, 머리 형태, 복장, 갖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또한 키 하나의 조작으로 표정이나 동작 등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채팅 및 게시판의 등에 이용되기도 하며, 사이트 운영 기업 중에는 아바타를 장식하는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출처 : 주일후쿠오카총영사관]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2010년 4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4월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0년 4월 14일(수)~17일(토)까지 일본 오카야마(岡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69년 이래 제4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회의개최(안)

- 개최기간 : 2010년 4월 14일(수) ~ 17일(토)
- 개최장소 : 일본 오카야마시(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 규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한국측 : 약 150여명 |

- 단장 :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효성·전경련 회장)
- 단원 : 경제5단체장 및 삼성, 현대 등 주요기업 대표, 관련단체 등

| 일본측 : 약 150여명 |

- 단장 : 일한경제협회 飯島英胤(IJIMA Hidetane) 회장 (도레이 특별고문)
- 단원 : 경단련 회장 등 주요경제단체장, 미츠비시, 도시바 등 주요기업 등

-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기타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희망 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조덕묘 부장 TEL : 3014-9855 / E-mail : chodm@kje.or.kr

